



미 증시, 근원 CPI 상승에 하락 출발했으나 기술주 급등에 상승전환

SUMMARY

1. 8월 CPI는 대체로 예상치 부합했으나 코어 CPI MOM으로 소폭 증가
2. 결론적으로 25bp 인하 가능성 확실시,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50bp 인하 가능성 축소되는 결과
3. CPI 결과 소화하며 엔비디아 수요 기대감에 상승출발하겠으나, 반도체 3분기 실적 우려 우려로 업종내 차별화 예상

미국 증시 리뷰

11 일(수) 미국 증시는 8월 CPI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50bp 인하 전망이 후퇴하며 1.8%대 급락 출발. 그러나 엔비디아(8.15%) 수요 기대감 유입 및 TSMC 투자외견 상향에 반도체 업종 투심 회복, 대신 TV 토론 해리스 우위로 무역갈등 불확실성 해소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 (다우 +0.31%, S&P500 +1.07%, 나스닥 +2.17%, 러셀 2000 +0.31%)

CPI 헤드라인 YOY 2.5% (예상 2.5%, 전월 2.9%), MOM 0.2% (예상 0.2%, 전월 0.2%)로 예상치 부합. 코어 YOY 3.2%(예상 3.2%, 전월 3.2%), MOM 0.3%(예상 0.2%, 전월 0.2%)로 소폭 상승.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물가는 MOM 7월 0.21% → 8월 0.33%로 두달 연속 상승.

식품 전월 0.2% → 0.1%로 둔화, 에너지 물가는 중국 부동산 침체와 수요 약화 여파에 0.0% → -0.8% 하락을 기록. 신차 전월 -0.2% → 0.0%, 중고차 -2.3% → -0.1%로 하락세 지속되었으나 운송서비스 부문인 자동차 보험료 1.2% → 0.6%로 (+) 증가 지속.

근원물가 상승요인은 1) 여름철 휴가시즌으로 인한 호텔 숙박 7월 0.2% → 8월 1.8%, 항공운임 -1.6% → 3.9% 상승, 2) 주거비 6월 0.2% → 7월 0.4% → 8월 0.5%, 임대료 6월 0.2% → 7월 0.3% → 8월 0.5%로 상승폭 확대. 또한 미국의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여파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시장에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상임대료인 '소유자 등가 임대료'(OER)는 0.4% → 0.49%로 상승.

미국 정부가 최신 엔비디아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사우디 정부는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인 엔비디아 H200의 인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힘.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월 CPI는 대체로 예상치 부합했으나 코어 CPI MOM으로 소폭 증가. 예상치를 하회할 시 경기침체 우려 확산 및 50bp 인하 가능성 확대, 예상치 상회할 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변동성 확대를 예상.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로 Fed Watch 상 25bp 인하 가능성은 60%에서 80%대까지 상승, 50bp 인하 가능성 30%대에서 15%대로 하락. 이에 따라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 급등, 10년물 금리 역시 발표 직후 3.6%대에서 3.7%대로 급등했으나 하향 안정화. 결론적으로 25bp 인하 가능성 확실시,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50bp 인하 가능성 축소되며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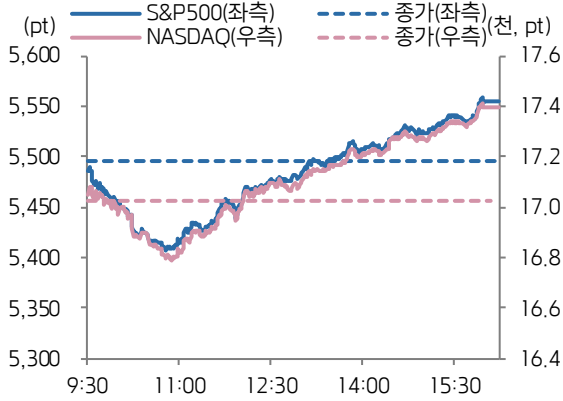
장 초반 하락 원인은 세가지. 1) 주거비, 운송비를 중심으로 한 코어 CPI의 MOM 증가로 서비스 물가 고착화 가능성, 기업 3분기 수익성 악화 우려, 2)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YOY 전월 0.7% → 1.3%로 급등하며 물가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 3) 50bp 인하 가능성 후퇴, 이로 인한 2년물, 10년물 금리 급등.

주거비 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5.2% 상승, 코어물가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 특히 최근 고용시장 둔화에도 임금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키운 가운데, 서비스 물가의 상승이 상품 물가로 전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우려 추가적으로 확대. 다음주 FOMC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은 변함없으나, 매파 인사들은 금번 CPI 결과를 두고 연말 금리 레인지 하향 조정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점도표 확인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

11 일(수) 국내증시는 미국 금융주가 수익성 악화 우려로 급락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금융주 약세, 외국인 반도체 1조원 순매도 등에 장중 2,500 선을 하회하며 부진. 코스닥은 이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으나 장후반 상승폭 축소 마감 (KOSPI -0.40%, KOSDAQ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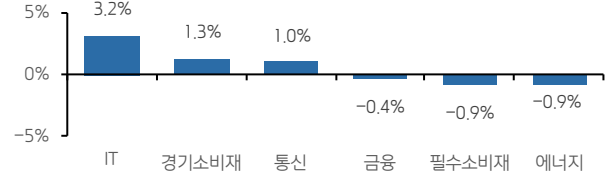
금일에는 CPI 결과 소화하며 엔비디아 수요 기대감에 상승출발하겠으나, 반도체 3분기 실적 우려 우려로 업종내 차별화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오전에 진행된 대선토론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였다는 평가. 이에 국내 이차전지, 태양광 업종이 강세 보였으며 해리스 공약 상 재정정책 확대에 대한 달러 약세 압력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 강세. 전일 미증시에서도 태양광 ETF(TAN), 신재생에너지 ETF(ICLN)는 개장초 각각 3%, 2% 이상 강세 보였으며 대선 영향 축소되며 차익실현 물량 출회될 수 있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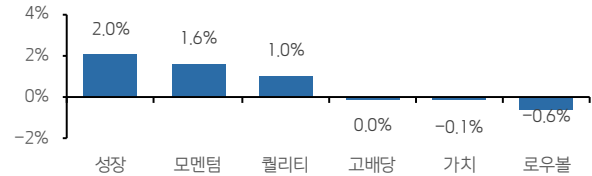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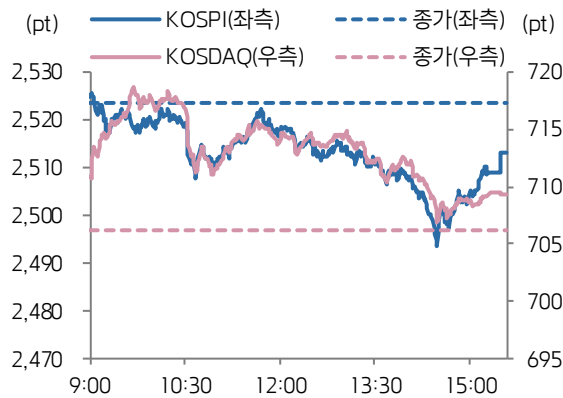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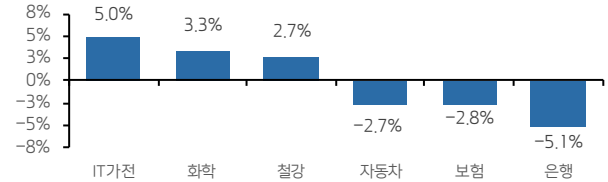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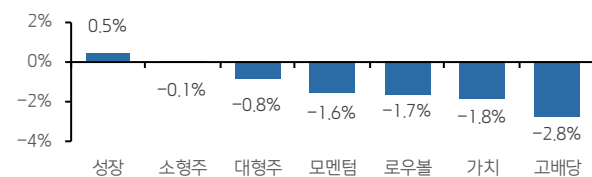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2.66	+1.16%	+16.09%	GM	44.67	-0.33%	+25.37%
마이크로소프트	423.04	+2.13%	+13.11%	일라이릴리	920.89	+2.18%	+58.75%
알파벳	151.16	+1.68%	+8.48%	월마트	78.84	+0.04%	+51.49%
메타	511.83	+1.39%	+44.9%	JP 모건	207.23	+0.81%	+23.98%
아마존	184.52	+2.77%	+21.44%	엑손모빌	109.72	-0.99%	+12.56%
테슬라	228.13	+0.87%	-8.19%	세브론	137.88	-0.25%	-4.55%
엔비디아	116.91	+8.15%	+136.11%	제너럴일렉트릭	78.84	+0%	+51.5%
브로드컴	158.27	+6.79%	+42.84%	캐터필러	335.00	+0.25%	+14.71%
AMD	149.86	+4.91%	+1.66%	보잉	161.33	+0.79%	-38.11%
마이크론	90.65	+4.38%	+6.42%	넥스트에라	83.43	+1.4%	+4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13.37	-0.4%	-5.34%	USD/KRW	1,341.50	-0.2%	+4.15%	
코스피 200	335.65	-0.84%	-6.24%	달러 지수	101.68	+0.05%	+0.35%	
코스닥	709.42	+0.46%	-18.13%	EUR/USD	1.10	-0.07%	-0.24%	
코스닥 150	1,183.65	+0.76%	-15.06%	USD/CNH	7.13	-0.09%	+0.05%	
S&P500	5,554.13	+1.07%	+16.44%	USD/JPY	142.36	-0.06%	+0.94%	
NASDAQ	17,395.53	+2.17%	+15.88%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0,861.71	+0.31%	+8.42%	국고채 3년	2.815	-6bp	-33bp	
VIX	17.69	-7.29%	+42.09%	국고채 10년	2.938	-6.9bp	-23.7bp	
러셀 2000	2,103.85	+0.31%	+3.79%	미국 국채 2년	3.642	+4.7bp	-60.8bp	
필라. 반도체	4,910.17	+4.9%	+17.6%	미국 국채 10년	3.653	+1.1bp	-22.6bp	
다우 운송	15,550.34	-0.38%	-2.19%	미국 국채 30년	3.966	+0.3bp	-6.3bp	
상해종합	2,721.80	-0.82%	-8.51%	독일 국채 10년	2.112	-1.9bp	+8.8bp	
항생 H	5,982.55	-0.73%	+3.7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523.16	-0.49%	+12.85%	WTI	67.31	+2.37%	-5.1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0.61	+2.05%	-8.35%
Eurostoxx50	4,763.58	+0.35%	+5.36%	금	2,542.40	-0.03%	+17.7%	
MSCI 전세계 지수	813.61	+0.63%	+11.91%	은	28.56	+1.08%	+18.59%	
MSCI DM 지수	3,578.65	+0.75%	+12.92%	구리	408.30	+1.05%	+4.95%	
MSCI EM 지수	1,058.69	-0.39%	+3.41%	BDI	1,941.00	-0.87%	-7.31%	
MSCI 한국 ETF	61.66	+0.62%	-5.91%	옥수수	404.75	+0.12%	-19.6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9.25	+0.87%	-13.42%
비트코인	57,495.02	-0.14%	+35.26%	대두	1,000.50	+0.33%	-19.69%	
이더리움	2,348.09	-1.26%	+2.88%	커피	246.65	-0.22%	+30.9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